執行의事實不可能으로 北栗面小作料執行은中止

아모리집행을하여도소작료는못된다고

特派員 李奭 電話

鬪爭의北栗面에서

재녕군 북률면(北栗面)에서 동척회사가 소작인에게 집행을하다가 방축사실까지 잇서서일대 충돌이 생긴이후에 동텩측에서는집행을 계속하다가는 또큰소동이 생길가 두려워하야 집행은 무긔중지하엿든바 지난 십삼일 오후부터 경관대의 위협하에다 시집행을 시작하엿다 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십사일 오후와 지동면석포리(石浦里)에서 한사람 동신흥리(東新興里)에서 한사람서신흥리(西新興里)에서세사람석해리(石海里)에서세사람 합일곱사람을집행하야 소작조합에모혀들은수백명 소작인은 또소동을이르킬듯하매 오후네시경에 경관과 집달리도 겁이낫던지『집행』을한대야 소작료에충당할만한 거리가업다하야집행은 그만두다선언하고 경관과집달리는 재녕읍으로 몰아갓승으로 일시큰소동이다시 이러날듯하든 북률면은 무사하게된 모양이나 동텩에대한감정은 더욱심하여가는 터임으로 도뎌히안심할수는 업는처디라더라

소작인은 最後까지奮鬪할決心

대표를본뎜에보내여

소작조합측에서는 더욱더욱 결속을굿게하야 동텩과 최후의 관을 하는동시에 또정당과련락하야 개화중인 중의원의회에서도 문데를이르키기로계획중이라더라 (高世衡)당씨를동경동텩보뎜으로대표리몽서(李夢瑞)고세형으로대표 ...

손님을기다리는 식물원의 꼿밧

쌔아닌봄철을홀로우스며

◇각색화초는각각제빗을자랑하는창경원식물원
◇일원이나오십전이면넉넉히살수잇는취미세상
◇세상의쓰림도이압헤서는잇게되는생신한깃븜
◇조선인은노란빗, 일본인은분홍, 서양인은백색

봄이왓습니다! 봄이왓습니다!

창경원(昌慶苑)안 식물원(植物園)온실(溫室)속에는 쌔아닌봄이왓습니다, 치위를모르는 온실속에서곱게 곱게자라나는 앵초(櫻草)『크리쟈』란초들은 수접은처녀 가티 미소를띄우고잇습니다, 꼿나라의 대표적인『숙크라멘』은 산듯한그얼골에 아름다온향긔를 곱게뎔치고자긔의 숨은자랑을 소리업시속살거려요 인간의쓰림이란조곰도업는 딴세계거리를 간듯합듸다 꼿사라는 부인네들구름가티 몰려들어 꼿포기를단숙안고 향긔에취하야지는 해를애뭡다 고아니합듸다『숙크라멘』오촌(五寸)화분에일원 삼촌화분에사십전, 기리샤시인이『나를닛지말라』든물망초(勿忘草)도 사오십전에 더지나지안읍듸다, 조선온돌에서 가장잘자라는『아스파라가스』삼촌화분한개에 십오전이 요란초나백합이나 오촌화분에 일원이 넘는것은별로업습니다, 수효는이십여종——조선사람은노란빗, 서양사람은흰빗, 일본사람은적백(赤、白)의중간빗을만히사가드랍니다, 일년중에가장만히팔리는 시절은꼿피는봄, 그다음이닙써러지는 가을——하로에백포기이상이 팔리드랍니다, 어엽부고귀엽고 순결한그꼿을뉘아니 사랑하리오곱고 향긔로온꼿! 신비의도덕을품은 꼿! 아! 인생의 마음이 꼿이라면!

議會突入事件

최하징역륙개월

데사십팔의회의장(第四十八議會議場)에 무단히침입하야 폭행을한 우입구회의원(牛込區會議員)토창종명(土倉宗明) 이하 륙명에대하야 십사일 동경디방재판소에서 다음과가튼 구형이 잇섯다더라

▲土倉宗明、淵島福松各懲役一年▲大野案治、原文造、島田猪之助、山中伊三郎、野田光五郎各懲役六個月

恩人의돈으로 不當利得

재판의결과로 또상지가되여

함남홍원군 보청면부지리 함태윤대 김형건(咸南洪原郡甫靑面茂桂里成泰允對金亨鍵)금권며차사건은 지난달십이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김형건이 패소되여금삼천팔백원을 물게 되얏는대 김은본래삼호래생으로가세가적빈하야할수업시무제리로와서마참는인함씨를맛나함씨의주선으로며러가지의장사를하여오다가 원산개원상회(開元商會)에서돈만원을어더장사를개시하여일반사회에대한금권의신용도엇게되엿는데김씨는자긔낭탁만하고그후개원상회에서 어더온 금액을갑고 나머지돈삼백원은 함태윤씨개인이 물게되얏는데 전긔김형건은 개원상회에 보금할돈삽백원에대하야 함씨에게 독촉이자심함으로 함씨는 심히곤난하게되여삼호김종긔(三湖金鍾基)씨에게서 돈삼백원을 차용하야 이에 지불한일이잇섯더니 전긔김형건은 함씨에게『김종긔씨가 갓다쓴 돈삼백원에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물론하고 저당품을요구한다고』하면서 졸름으로 함씨는 김종긔씨에게 그사실을 알아본즉 전연거짓말임이 폭로되엿다 이것을본함씨는 김형건을의심하게되여 피차간 회계를 청산한후 장사를가르자고 여러번 말하엿스나 도모지듯지안코 이러저럭 피함으로 강청으로문서를 밝킨즉결국 삼천팔백원의 금액의 모호한것이 탄로되여그 족석에서 김면교(金勉教)씨 중필하에 잘못한증문을쓰고 삼천팔백원의 차용증서까지 하엿스며김씨는 엇진일인지 그후자긔의아들 미성년인영용에게 전답은물론하고 재산을 이동하면서돈갑흘 생각을하지아음으로 함씨는부득이항흥디방법원에 소송을하야 이개년동안 심리한결과 피고 김형건은패소를 당하고또다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데긔하얏스나 또한 패소를당하고삼천팔백원의 금액을 물게되 낫가 큰일은 차금한돈을그친족들의명의로 변경하는등 재미롭지못한일이잇서 함씨는 돈밧는것보다 쳐사가 가증하다고하야함흥에서는 말거리가 된다더라(함흥)

송아지도적

근처에서잡어먹어

강동군만달면송호리동부(江東郡晩達面勝湖里東部)사는정명주(鄭明珠)의집송아지시가약이십원자리되는것을 지난십일밤에 도적하여갓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십일밤십일시까지도 송아지가 마구안에 잇섯는데 그이튼날아츰에보즉송아지가업서젓승으로 이리저리 차저다니든바 정명주의집근처에잇는일본인가등석회공장(加藤石灰工場)뒤과내싸혼곳에서 송아지를 잡아고기와 가죽은가저가고 소머리와내장과 뼈다귀는 남겨두고어데로간것을 발견하고 즉시소관주재소에 통지하엿는데 지금범인을수색중이라더라(승호)

普天敎徒又詐欺

어리석은부인과소년을속여 토디를편취하려하다가발각

전남광양군옥룡면추곡리 보텬교도서사문(普天敎徒徐仕文)(四三)이란자는 그동리고리경량의 처우골약(故李敬亮妻禹骨若)(四五)과 그아들리감보(李甘甫)(一八)를 유인하야 혼치기보텬교에 입교하면묘흔일이 잇다고 말하여토디를 편취하려다가 발각되엿는데 처음에 삼개월만면을것이 잇스면 그이외의재산은 쓸데업다고말하며차텬자(車天子)가

도흑하면

수가난다하야 모자가입회(母子入會)하라고 수차유인하매 작년음력 십이월이십오일경에 승락(承諾)을 하엿섯다 그후서사문은 광양읍내보텬교사무소에가서 정교부장(正敎部長)을면회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말하고 그어리석은 부인을다리고 정교부에가서 정교부장 정군오(正敎部長鄭君五)를 맛나게하엿는데 정군오가 또말하기를 삼개월만면을 것이외에는 쓸데업는재산이라동을 만히바치면 묘흔교지를 주고팔임(八任)이되는데 그리면 현감군수가 와서보고 쌀을매월 팔석식 주고그이상 묘흔일이잇슬것이요 지금가지고 잇는재산은 권부는자긔의 재산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말로중언부언 하야유인하얏스나 우골약 (禹骨若)은 재산이업다고 사절하얏는데 서사문(徐仕文)이는 또 그달이십팔일에순련에

묘흔구경

이잇스니나려와야 하겟다고 수차말하는것 밧분데 갈수업다고 도라왓는데 그자는 다시집에 와서보텬교에 입회하고 또이런세상에 업는묘흔구경을아니하면 아니된다고 말하며 이십팔일에 또말하기를 『교헌을하려면 도장이잇서야되겟다』고함으로 도장을주고순련

고적을한

다는도장을가지고 우씨아들리감보의 소유답 닷말낙을 리종환이란자와 공모하야 매도계약을하고 매매하얏다하고 음이십구일밤에 서사문이가 우골약의집으로와서 토디닷말락을 리종환에게 매두락일백오십원에 작뎡하고 약조금으로삼백구십원을 령수하고 이백오십원은 보텬교에 바치고남어지 일백사십원을바드라고말하매우골약은 긔가막히어서 이것이웬일이냐 보텬교에 입회한다고 도장을 달라더니 이것이무슨말이냐하고 음정월삼일에 그면주재소에

구두고소

를하야서사문과리종환을인치취됴한결과죄상이탄로되엿는데 그뒤 오일에교도서사문이는 변소에 간다고나

작란電話로 大騷動

뎐화과잇는사람 뎐화작란이위험 일시경찰도소동

십삼일밤에 시내명치뎡 이뎡목(明治町二丁目)팔십이번디대화간이식당(大和簡易食堂)에누구의소위인지 뎐화로『오늘밤중에 여섯명의 강도가 네집으로갈터이다』라는경고를 하엿승으로 그식당에서는 망지소조하야 즉시본뎡서에 고발을하얏는데 동서에서는 이일이조선에서 처음되는 사실임으로 깜작놀나활동을개시한결과 그뎐화를 건사람인즉경성우편국 뎐화과(京城郵便局電話課)에사무원으로 잇는 안천류수(安川流水)(一九)와등본무남(藤本武男)으로판명되엿든바처음에는 일시대소동을 이루엇스나그두사람은자 조그식당에다니면서 노는아조 무관한터의 사람들로마츰그때 뎐화를 밧는목소리가그집하녀준자(雅子)임을알고룻당으로 그런작란의소리를한것으로 알게되여 한바탕우승으로 웃음마게되는 동시에 전긔두청년에게 대하야는 후일을경계하엿다더라

賭博犯十名

죽첨뎡에서톄포

십삼일오후팔시삼십분경에서대문밧죽첨뎡일뎡목 (竹添町一丁目)륙십이번디조선정미소 (朝鮮精米所) 안에서여러사람이도박을한다는것을 서대문 서원이탐문하고 현장에 급행하야십여인이 투전으로『동당치기』를 하는것을곳톄포에로래하여다가 십명은 뎌과가티 십명은 도망하엿다더라

▲林淳完(三四)▲安今喆(三五)▲李泰淳(三二)▲金長飛(三〇)▲林道植(三四)▲盧錫祚(三一)▲金永泰(四四)▲俞俊明(四〇)▲金雲善(四二)▲金孝明(二六)

日本共産黨公判은

오는십칠일오전열시에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계리언(堺利彦)좌야학(佐野學)근등영장(近藤榮藏)등에대한공산당사건(共産黨事件)의 피고 이십구명의 공판은 오는십칠일오전열시부터 동경디방재판소에서 우야(宇野)재판장의주재로십구명의 변호사가참석하고 개뎡될터이라더라

東京在留同胞 滿亞教育同盟을

만주나서백리아동포를위하야 지난팔일에교육동맹을발긔해

일본동경(東京)에잇는우리동포가운데 만주(滿洲)와 서백리아(西伯利亞)에 잇는 백여만동포의교화문데를 철뎌히 해결코저『만아교육사업동맹』(滿亞教育事業同盟)이 나타난다 함은 이미보도 하엿거니와 그후만흔동지의가맹을 어더지난팔일 오후한시에 림시사무소인 신뎐구신보뎡(神田區神保町)칠번디김연수(金演秀)씨방에서발긔인총회를열엇는데 당일협의사항과 피선된위원은 다음과갓다더라

一、宣言과綱章制定에關한件
二、各部委員選擧에關한件
三、滿亞方面教化事情視察과巡廻訪問講演에關한件
四、同盟自體의目標、事業、活動範圍에關한件

◇各部委員

總務部 金演秀 李弼九 ...
庶務部 許昱 金演經
經濟部 金相弼 崔文鎬
編輯部 金魯聖 金亮鎬
社交部 宋鼎鎭 ...
才性 安鳳鎬 陳永勝 白...
玉 ...承德 金正根 朴...

講武館賞狀授與

모한련습한유도련습생에

시내관훈동에잇는 강무관(講武館)에서는삼주일모한련습(冒寒練習)생이십명중 개근(皆勤)한 열세명과 삼급과 오급과 륙급으로진급하는열세명에 대한 개근장과가리십사일오후여섯시부터회원들의자수(自手)로수선한 강법(講睡)『다다미』를 쌀고동회관에 열고 개회사로종서수여가마치고이어서래빈동아일보긔자최긍(崔兢)씨의 축사(祝辭)가잇슨후 이어서만찬연(晩餐宴)이잇섯스며여흥으로 홍백을난호아『윷』노리가잇서 화긔가가득한 가운데폐회되얏는데 매일새벽 다섯시부터일곱시까지 모한 련습에삽주일동안하로에 일분도 틀림업섯든김일복(金一福)문진호 (文鎭浩) 량군에대하야 특별히상을수여하얏다더라

仲媒잘하는자

병신까지중매하고 돈을먹다가톡햇다

충북청주군(忠北淸州郡)현도면(賢都面)양디리(陽地里)오연학(吳淵鶴)은길도전과가두번이나잇는자로서 녀자중매로 업을삼어서 처녀나과부를 물론하고중매하는데 중매할때에 말하기를돈이드러야 혼인이된다고 하야몃십원식 먹는데본년 일월중의 중매한것이 오륙인이나되고 돈을먹은것도 수십원이라는바 그중에도 가증한바는 자긔삼종질에게말하되내의

처당질녀

가잇는데규수로말하면 더말할것도업시 잘두엇거니와 돈삼십원만 내어면그곳으로 혼인을뎡하야 주마하는고로 그삼종질은 삼종숙인것만 밋고 돈삼십원중으로 십오원과 사주를하야 주엇는데 그후로그

仁川外里에 불상한죽엄

시상에써친시데 언제나장사지내

인천부 외리권영덕(仁川府外里一四一金泳德)의 처강씨(姜氏)(三五)는오래동안병으로신음하다가결국은 지나간 십사일오후팔시에 사망하엿는데 강씨는권부모른는어린아들수룡(須龍)(一〇)을다리고 삽순구식을 하여가면서이써것 근근히살어오던중 강씨가별안간 세상을 떠낫승으로늙은영감 어린아들의 울며부른짓는 모양은참아 볼수업는중세발막대거칠것업는 그살림 으로더욱이 원근간에 아모친척도업더라

失手하고毆打까지

자전거탄경관의폭행

지난구일오후여섯시쯤하야광주북문통(光州北門通)경관파출소에서 일본사람이 유도(柔道)를사용하야 조선사람을 넘어트리여머리가깨여지고류혈이림리하야 일시는대혼잡을 일우엇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일본사람은당디경찰관교습소에서근무하며류도(柔道)교사로잇는순사부장궁내관삼(宮內關三)이란자로서지나다가 일곱살쯤된 어린아이

자전거를

타고북문통을지나든 루문리(樓門里)사는 심상옥(沈相玉)(三三)씨가 그광경을 보고 쏘차가서 궁내란 자를잡어가지고 어린아이와 함께그파출소로 가서 그무리함을책망한즉 파출소 순사들은가해자가 순사부장임으로 아모말도아니하고 잇는동안에 궁내는

어린아이

에게돈이십전을주어보내면서 심상옥씨를 대하야아이와 너와 친척관계가잇느냐고 물음으로 아모관계는업스나 인정상그런 행위를보고잇슬수업서서 말함이라 하매별안간유도를 사용하야 넘어트리며건방진 놈이라고 야료함으로심상옥씨는 피를흘리면서 경찰서까지 가서말한즉 멀정한사람을보고술취하엿다 하며 나가서생각하야 하라고함으로 엇절수업시도라왓스나 장차고소를 뎨긔할모양이라더라(광주)

漢江通에發疹病

경찰은방역준비

시내한강통(漢江通)륙번디백원 ...

藤島에小火

손해가백원

십사일오후령시삼십분에고양군뚝도면 군자리(高陽郡纛島面君子里)십사번디 최중봉(崔仲奉)의집에서불이나서한시간동안이나탓는데 원인은재떠럼이에 처다분재에서 사람업는틈에 난것이며손해는 백원이라더라 (십사일오후네시고양지국뎐화)

義州通小火

십사일오후팔시삼십분경에서대문밧 의주통일뎡목(義州通一丁目)륙십삼번디박세하(朴世河)의집에불이나서 즉시진화하엿는데 원인은방안에 두엇던 화로에서불이흘러나온것인데『이불』세개만탓다더라

◇集會◇

◇靑年會日曜講話 종로청년회에서는 금십오일 일요오후세시에『긔독과금일(基督과今日)』이란문데로홍병선(洪秉璇)씨가강연한다고

캄파휘

▲십사일오전십일시사십분에동경한내마장선문경시텽(丸內馬場先門警視廳) 안에잇는형사과와소방본부와의사이에잇는소사실(小使室)로 부터 발화하엿는데▲동부내에 잇는 소방대는물론니오 각서로부터 수대의소방조가 달려오고 태뎐(太田)경시총감이하 총동원으로 쌔볼만한 소방활동을 햇스나결국십팔평의 소사실전부를 태워버렷는데▲원인은 연돌의 부주의로생긴것 이라하며 불쏘는취데를하는경시텽으로 안자서는 실로창피막심한 일인동시에 그경시텽긔디로 말하면 재작년가을대디진이래에 궁내성(宮內省)으로부터 오개년계약으로 빌린것인데▲궁내성에서는 이번발화는의외에 일이라하야 오개년계약을취소한다고통고하엿승으로경시텽에서는자못 내공황이라고

觀念旅行

民世

觀念旅行! 자못新奇한命名이다 그러나일부러新奇를조하함이아니라이번旅行은곡觀念의旅行이라하고십다 今日까지의우리의計劃과運動이大部가아즉觀念의領域을멀리벗지못하엿스니그는時弊의큰者이다 觀念의世界로서實現의世界에또는創造와建設의世界로速進또猛進하여야할것이現下의一急務이다 그리고旅行이란가장觀念의世界를벗어나서生新한觀察의世界에또는冷靜한行事가오또는거긔에서必要한價値를뭇기는것이어늘依然한腐한觀念의持續및延長으로써한窮阨으로與下에서품고잇든陳다한진대그는가장旅行의下乘인者일것이다 그러나觀念의旅行인것이正直한非實인바에야그대로記述할밧게업다 走馬看山이라는말이잇스니달려가는馬背에서山水의大槪를봄이매우不充分치못함을이름이다 走馬看山이이미不充分하거든하물며汽車를타고안저千里의山河를一瞥

...

連理枝 (17)

련리지

소요산인

조혼일하는깃븜

...